

나는 행복할거야!...

내가 만약 모든 장애물들을 발판으로 만들 줄 안다면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 5,4)



목표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받아 들일 줄 알기



어땠나요?

새로운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 방학이 끝난
뒤 한 명 한 명을 맞이하고 단위 쟀그룹을
재정비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 자가 살았던 경험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도록
합시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는지,
이상이 어떤 “미션”으로 우리를 부르는지,
그리고 올해 우리는 무엇을 실현해나가길
바랄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모임을여는활동

고통을알아보기

목표: 나와 내 주변의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보
는 것

준비물: 다양한 이모티콘(모양화(양식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 혹은 고통의 감정과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는 다른 이미지들



방법: 청소년들을 3/5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나누고 각 자가 다른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도록 초대하도록 합니다. :

- 이 감정들에 대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 가장 최근에 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요? 또는 어떤 감정의 이모티콘을 소셜 네트워크에 사용하였나요?
- 나를 항상 걸려 넘어지게 하고 화 나게 하는 것이나 상황이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네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두번째 순간에는 이미지를 다시 꺼내 섞은 다음 새로운 그룹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너의 이모티콘이 무슨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같나요?
- 집과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최근에 이 감정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 인가요?
-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향한 너의 태도는 어떠하였나요? 모두가 말한 후에, 그룹 안에서 혹은 다함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아요

나의 가족으로부터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이 피곤하고 불만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었어요.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조차도 없이 주말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행복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지 일시적인 즐거움뿐 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곧 울기 시작했고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났어요.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버린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몰랐고 그렇게 자러 가기 전에 나는 기도를 했고,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텅 빈 방에서 나는 잠에서 깨었고, 다시 아주 강한 외로움에 휩싸였어요.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매일 출근하는 한 여직원이었는데 결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녀의 존재는 나에게 아주 중



요했어요. 그녀는 나에게 아주 평범한 것들에 대해 물어보았고 나는 아주 기쁘게 대답하였어요. 항상 친절하 그녀에게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많은 의미를 지녔어요.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상냥함의 의미에 대해 체험 할 수 있었어요. 그 때부터 나는 항상 그녀에게 미소로 인사해요. **이 경험은 사람 사이의 소통이 인간의 마음이 "좋은 기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어요.**

(T. 세르비아)

우리 반의 한 친구는 왕따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고통받는 것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나는 생활말씀을 기억해냈고, 그를 (우리 사이에) "포용하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그 친구의 안에서 고통받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수동적으로 남아 있는 대신에, 나는 교실에서 그 친구가 과제를 하고 다른 활동들도 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 친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쁘게 바라 보았어요. 그 친구를 포용하도록 (내 안에서) 나를 이끄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R. H. 엘 살바도르)



나는 행복할꺼야... 내가 만약 모든 장애를 없애면 나는 행복할꺼야...



이렇게 살아보아요

지난 여름에 나는 가족과 함께 친척들이 사는 필리핀에 가게 되었어요. 삼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피부에 과잉자극이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 자극은 몸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아주 더운 날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상태는 더 심각해졌고, 작은 걸음 하나에도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나를 보시고는 내가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셨어요. **그 순간에 나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떨 때는 고통을 받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뉴질랜드로 돌아갔을 때에 모두 낫는데 약 2개월이 걸렸어요. 아직까지도 그 때의 흉터들을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만났었던 순간의 기억이 나에게 더욱 강하게 남아 있어요.

(R. F. 뉴질랜드)

나는 행복할꺼야...
내가 만약 모든 장애를 버린다면 나는 행복할꺼야...



깊이 있게

우리는 고통 안에서 하느님의 위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삶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지만,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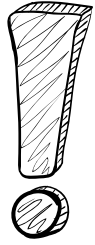
죽음을 맞은 소중한 사람,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한 소년, 사랑이 부족한 많은 가족들, 많은 꿈들을 포기하게 만든 갑작스러운 일, 외롭고 슬퍼하는 사람들. 세상은 너에게 이야기해요. "너도 고통받지 않으려면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가".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그런 그들이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복되고,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고통 받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분은 고통 받기를 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어떻게 그분이 고통을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젠들은, 놀이와 재미거리, 또는 그저 즐기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만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속이

지 않을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모두 끝이 나요. 우리가 고통 안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지니지 않는다면 한국의 젠 정 바오로처럼 우리의 고통을 바쳐드리지 않는다면 절망에 빠지게 될것이에요. 그는 병원에서 어머니께 이렇게 적었어요. "병과 고통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의 아주 가까이 계신다신다는 것을 깊게 느껴요." 제노바의 젠, 첼로도 "세상은 고통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것에서 도망치거나 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고통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에요."라고 적었어요. 

끼아라루빅,
로까 디 파파, 1975년 6월 20일,
3젠 대회. 산상 수훈



한 번 시도해볼거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분의 만남과 위로로부터 얻게 되는 깊은 행복을 발견하는데,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이번 달에는 나는 이것을 훈련합니다.

- ☞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어려움의 순간들에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 ☞ 어려움 안에서 고통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그 분과의 관계를 자라게 하는 것
- ☞ 모든 장애물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드는 것
- ☞ 섬세함을 지니며, 내 주변의 고통 받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함께 머무는 것.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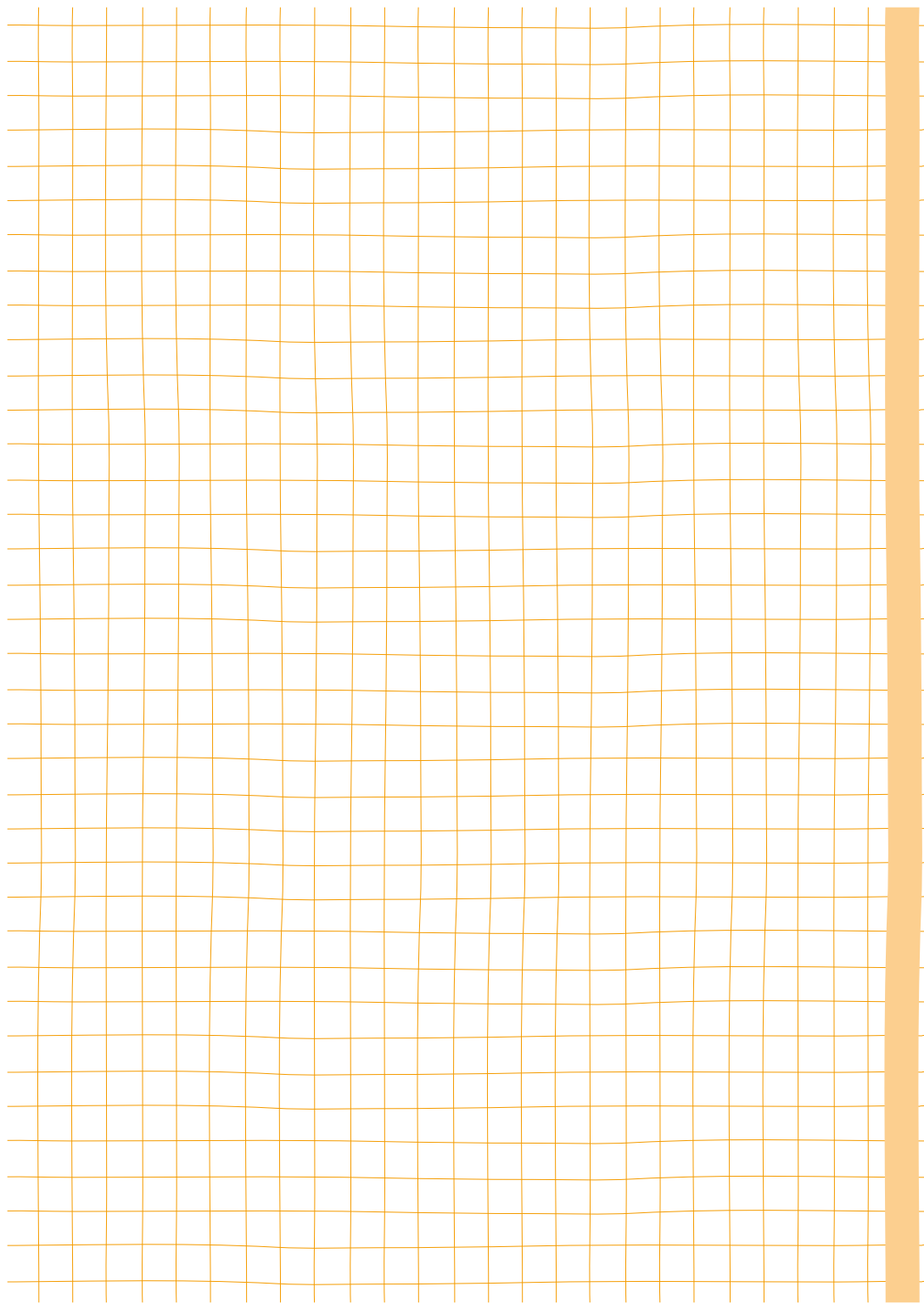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와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메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들은 우리가 함께 경험을 나눌 때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슬픔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나의 고통 안에서 예수님과
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
나요?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을 발
견할 수 있었나요?

어떤 방법으로 그와 하
나가 되어줄 수 있었나
요?



보조자 공간



모임 후 평가

- 어떤 분위기였나요? 다시 만나는 기쁨과 서로 간의 충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나요? 모든 이를 존중하는 경청과 열린 나눔의 분위기가 있었나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활동을 위한 제안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다음 모임을 위해, 우리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고통이 있는 특별한 환경(영역, 분야)에 대해서 다룰 수 있었나요? 주제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모임에 무언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까요?
- 우리 보조자들은 다음모임 때까지 그들의 지닌 계획에 대해 어떻게 청소년들을 동반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편다인케백만마이회해
이백만개
행꺼야
평
나
내

